

실천적 승가모임 '향수해' 결성 첫 행보는 नेपाल 지진 피해 구호

6월 1일 네팔로 출국

지진 피해로 엄청난 어려움에 겪고 있는 불자들의 고향 네팔을 돕기 위해 '향수해' 스님들이 두 팔을 걷어 붙였다.

향수해(香水海)는 수미산을 둘러싸고 있다는 향수로 된 바다를 의미하는 뜻으로 부처님의 가르침 실천해 한국불교의 희망이 되고, 세상을 향기로운 세계를 만들기 위한 모임이다.

이 모임은 '청정승가를 위한 대중공사'에 동참했던 스님들이 주축이 돼 실천적인 대중 불교 운동을 펼치기 위해 30여 명의 스님들이 모였다.

아직 정식 출범을 하지는 않았지만 자신들의 힘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재난을 당한 네팔 국민을 위해 회원 스님들은 심시일반 성금을 모금하고 직접 지진 피해 현장을 방문해 구호활동을 할 계획이다. 이미 5월 21일 조계종 아름다운 동행을

통해 성금 1000만 원을 전달하기도 했다.

'향수해' 대표인 마가 스님은 지진 피해로 부터 정신적 고통을 받는 네팔인들에게 힐링의 시간을 갖고 희망을 심어줄 예정이며, 짜장으로 자비행을 실천하는 운천 스님은 밥을 제공해 배고픔으로 부터 구원의 손길을 펼칠 계획이다. 네팔인의 어머니 진주의사 권현옥 씨도 이번 봉사활동에 참가해 향수해 스님들을 도와 구호 활동에 동참한다.

1차 봉사는 마하이주민센터 진오 스님과 함께 복구 현장에서 활동할 계획이고, 2차는 학교 재건을 위해 준비하고 있다. 이를 위해 향수회 회원들은 6월 1일 10여 명이 지진피해 복구 지원 활동을 펼치기 위해 네팔로 향한다.

향수회 사무총장 거제도 금강사 성원 스님은 "심시일반 마음을 모아준 회원스님들께 감사드리며, 앞으로 2차 3차 자원봉사를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신성민 기자 molp79@hyunbul.com

황교안 총리 내정자 종교편향 이력 논란

차 대통령, 21일 지명... '목사 과세 부당' 물의 빚어

신학대 출신 개신교계 법조인 94년개혁 스님 사법처리 지휘



비과세소득에 대해 규정한 소득세법 12조에 대해서는 "목회자 사레비는 일반 급여와 현저히 다르므로 그 원천이 된 성도들의 헌금은 이미 성도들이 세금을 납

법무부 장관 임명 당시부터 종교편향 논란에 휩싸였던 황교안 장관(사진)이 국무총리 후보자로 내정되면서 불교계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5월 21일 황교안 법무부 장관을 국무총리 내정자로 지명했다. 검사 시절 대표적인 공안통으로 활약했던 이력이 가장 큰 걸림돌이나, 그의 종교편향적 행보도 이에 못지 않다.

황 내정자의 종교편향적 시각이 잘 드러난 것은 그의 저서인 《교화와 법 이야기》이다. 그는 저서에서 종교인 과세에 대해 특정종교에 치우친 시각을 드러냈다. 현재 정부는 개세주의 원칙에 따라 종교인 과세를 적극 추진 중이다.

황 내정자는 저서에서 "(법원은)담임목사 사택과 달리 부목사, 강도사, 전도사 등의 사택을 세금부과 대상으로 판결하고 있다"며 "(이 같은) 판결은 지극히 잘못된 것이라는 비난을 면할 수 없다"고 법원의 결정을 정면으로 비판했다.

반면 교회 소유 부동산에 대한 과세에 대해서는 "교회 건물 및 부지, 사택, 기도원 등 여러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어 종합 부동산세를 내야 할 가능성이 있으나 다행히 현행법상 교회부동산은 원칙적으로 비과세 대상"이라고 기술했다.

부한 것일 뿐 아니라 종교자유 보장을 위해서라고 비과세 대상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권은 "세상법보다 교회법이 우선 적용돼야 한다"고 명시한 부분이다. 이는 법조인으로서 형평성을 잃어버린 기술이다. 실제 그는 '교회법'과 일반 사회의 '세상법' 간에 충돌이 일어날 경우, "우리 기독교인들로서는 세상법보다 교회법이 우선 적용되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 것"이라며 "하나님이 이 세상보다 크고 앞서시기 때문"이라고 했다.

황 내정자와 불교계와의 악연도 존재한다. 1994년 조계종 개혁 당시 스님들의 연행에 사법처리하는 과정을 진두지휘한 사람이 황 내정자다. 당시 황 내정자는 서울 지검 공안2부 검사였다.

황 내정자는 사법고시 합격 후 연수기간 중에 신학교에 편입했고 졸업 후 양천구 목동 성일침례교회 전도사로 활동했다. 검사 시절에는 각 검찰청 신우회 설립을 위해 노력했으며 법조계 기독교모임인 애중회 회원으로 활동했다. 신성민 기자

"낙단보 마애불서 종교활동 보장하라"

고운사, 16일 낙단보서 민족문화수호 결의대회

"어떤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반드시 민족문화를 수호해 나갈 것이며, 본말사 주지 스님과 불자 등 사부대중은 힘을 합쳐 종교차별과 불교탄압을 막아 낼 것이다. 반드시 낙단보 마애불을 수호해 나가겠다."

조계종 제16교구 고운사 본말사 사부대중이 5월 16일 낙단보 마애보살좌상 앞에서 '마애불 종교차별 불교탄압 규탄 민족문화수호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고운사 주지 호성 스님을 비롯해 말사 스님들과 신도 등 사부대중 500여명이 참석했다.

낙단보 마애보살좌상은 지난 2010년 10월 4대강 공사 낙동강 부근 낙단보에서 훼손된채로 발견됐다. 당시 조계종 총무원장 지승 스님이 낙단보 현장을 방문·참배했고 문화재청은 10월 29일 마애불을 중요 문화재(보물)로 지정했다.

이후 경상북도는 2011년 낙단보 마애불을 유형문화재로 지정했으며, 주변은 정비 사업을 통해 공원으로 조성했다. 이후 관리 부실로 인한 훼손 및 훼손의 문제가 제기되자 관할 교구본사인 고운사는 2014년 2월 성보의 관리와 보존을 위해 원종 스님을 마애사(임시법당) 주지로 임명했다.

그러나 2015년 수자원공사는 마애사 마

애불 앞 연등과 불단 등 종교시설물 철거하라고 일방적으로 구두로 통보했다. 이에 원종 스님은 1월 22일 수자원공사의 종교 탄압에 대한 항의 기자회견을 열고 수자원공사를 성토했다. 하지만 기자회견 이후에도 수자원공사의 탄압은 계속됐다는 게 고운사의 주장이다.

이날 대회에서 고운사 대중은 수자원공사의 일련 행보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본말사 사부대중 등 500명 동참 보존·참배로 등 약속 이행 요구 불이행시 국토부 항의방문 예고

고운사 주지 호성 스님은 "낙동강을 굽어 보며 중생들의 염원을 듣고 지켜준 마애불 앞에서 법회를 갖는 것은 종교 차별로 인한 사회적 갈등과 분열을 끝내고 민족문화수호를 실현하기 위해서"라며 "수자원공사 직원이 관리라는 미명하에 연등과 불단 등을 철거하고 단전도 하겠다는 통보는 우리 불자들의 신앙심을 무참히 짓밟는 만행이며, 당초 국토부가 한 약속을 스스로 어기



조계종 제16교구 본사 고운사는 5월 16일 낙단보 마애불 앞에서 '마애불 종교차별 불교탄압 규탄 민족문화수호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사진제공=고운사

는 일로, 종단과 고운사 그리고 불자들이 기만하는 술수이다. 이것이 바로 종교차별이요 불교 탄압"이라고 성토했다.

이어 "고운사 본말사 스님과 불자들은 국토부·문화재청이 당초 약속한 대로 마애불을 성역화하고 종단이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일체의 종교차별 행위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라"고 촉구했다.

이와 함께 법회 참석 대중들은 결의문을 통해 마애불 앞에서의 자유로운 종교활동 허용을 주장했다.

대중들은 결의문에서 "다종교 한국사회에서 우리 불자들은 국민화합과 종교평화의 버팀목임을 자부해 왔다"면서 "하지만 국토부는 천년의미소 마애부처님을 훼손한것도 모자라 지금은 이곳 마애부처님앞

에 종교 탄압을 일삼고 있다"고 힐난했다.

고운사 본말사 대중들은 △박근혜 대통령의 종교탄압 재발방지 약속 △마애사 마애불 앞 종교 집회 자유 보장 △정부는 국민과의 약속인 참배공간과 마애불 보존 대책을 조속히 이행할 것 △국토부 산하 수자원공사의 종교탄압 관련자 즉각 해임을 촉구했다. 이어 "정부 및 관계기관의 성의 있는 조치가 없을 경우 국토부 항의방문 등 범국민적으로 종교탄압에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결의했다.

이날 법회는 마애불과 낙정, 낙단보 구간을 행진하며 "종교탄압 중단"과 "종교자유 보장" "종교탄압을 자행한 수자원공사 관련자들에 대한 해임" 등을 촉구하며 마무리됐다. 신성민 기자

흥천사, 친환경 한옥 어린이집 개원한다

최적 보육환경... 6월 1일 개원 20일 지승 스님 방문해 격려도



오는 6월 1일 개원을 앞둔 서울 흥천사의 흥천어린이집은 5월 25일 조계종 총무원장 지승 스님과 총무원 부실장단을 초청해 시설을 공개했다. 사진제공=조계종

서울 흥천사(주지 정관)에 산과 사찰이 어우러진 친환경 보육시설 '흥천어린이집'이 개원한다. 한옥 목조로 지어진 흥천어린이집은 주변 산림과 흥천사의 전각이 어우러졌다. 한옥 목조 양식의 어린이집은 전국에서도 드물다.

서울시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사업의 일환으로 흥천사 경내 부지 2,734㎡를 활용해 국비와 시비, 구비, 흥천사 자비 등 총 22억여원의 예산이 투입됐다. 지하1층, 지상2층, 연면적 591.86㎡ 규모로, 내부는 한옥 전통 양식과 달리 자연채광을 활용한 현대식 시설을 갖춘 친환경적인 보육시설로 평가받고 있다.

지하 1층은 조리실과 교사실, 교재실, 세탁실 등을 갖췄으며, 지상 1층은 원장실과 0~4세 보육실, 다목적 홀 등으로 꾸며졌다. 지상 2층은 5세 보육실, 다목적 홀 등이 마련됐다. 장애인용 엘리베이터와 모든 층에 화장실을 설치했고, 작은 정원도 꾸

며 최적의 어린이 보육시설을 갖췄다.

지난 4월 준공과 동시에 원아를 모집한 흥천어린이집은 현재 0~3세반에 50명의 어린이들이 입원한 상태다. 내년부터는 4~5세반도 운영해 총 85명의 정원을 채울 예정이다. 원장을 비롯해 총 10명의 보육교사와 1명의 조리사 등이 어린이들을 보살피고 있다.

흥천어린이집은 오는 6월 1일 개원을 앞두고 5월 20일 조계종 총무원장 지승 스님을 비롯한 총무원 부·실장단을 초청해 시설과 운영현황을 공개했다.

이 자리에서 지승 스님은 "흥천사와 숲이

함께 어우러져 친환경적이면서도 내부는 작은 곳까지도 아이들을 배려한 세심함이 돋보인다"며 "그동안 내가 본 어린이집 가운데 가장 잘 지었다"고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이에 정법 스님은 "설계부터 시공까지 하나하나 직접 점검하며 최상의 어린이집을 갖추기 위해 정성을 들였다"며 "흥천어린이집이 종단을 대표하여 모범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각오를 밝혔다.

한편, 흥천사는 이날 공익기부법인 아름다운동행에 내팔지진 피해 돕기 성금 500만 원을 전달했다. 신성민 기자

'사찰토지처분금' 개정안 재추진

총회 재정분과위, 9차 회의서 결의

각 사찰의 토지처분금을 모아 종단 목적사업에 투입하는 방안을 골자로 하는 '사찰부동산관리법' 개정안이 재발의된다.

조계종 중앙총회 재정분과위원회(위원장 주경)는 5월 13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회의실에서 9차 회의를 열고 늦어도 11월 정기회까지 사찰부동산관리법 개정안을 처리하기로 뜻을 모았다. 토지처분금을 총무원으로 모아 종단 목적사업에 사용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사찰부동산관리법 개정안은 지난 15대 중앙총회에서 발의됐지만 본회의에서 일부 교구본사 출신 총회위원들의 반발에 밀려 부결됐다.

논의 끝에 재정분과위원회는 6월 임시회 이전 개정안에 대한 기반안을 마련하고 교구본사주지협의회와 공동으로 세미나 혹은 간담회를 진행하기로 했다. 이를 토대로 개정안을 확정하고 늦어도 11월 정기회에서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하자는 데 뜻을 모았다. 신성민 기자

佛紀 2559年 乙未年 Buddha's birthday **평화로운 마음 향기로운 세상**

부산불교회관은 도심포교를 위해 계획 설계된 미래불교 도량입니다

(부산시청 옆) 정통교육도량

부산불교회관 여여성원

(부설-자선단체) 세상을 향기롭게

선원장 정여스님(前범어사 주지)

영도대흥사	주지 정여스님
대연동 붓다선원	주지 도경스님
삼랑진 여여정사	주지 도명스님
김해 여여정사	주지 도명스님
해운대 여여선원	주지 도우스님
사랑도 관음낙가사	주지 효원스님
울산 여여선원	주지 효암스님

여여성원 신도회 명예회장 김경환
신도회장 이향순

신도회, 총동문회, 복지회, 선림회, 명상회, 십만배기도회, 여여선악회, 여여성원카페, 지장회, 관음회, 청년회, 청소년회, 어린이회, 기초교리반, 여여불교대학, 선불교대학원.

■여여성원: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진영로 15, 7층(부산불교회관)
TEL 051)853-5486~7, FAX 051)863-6422

■세상을 향기롭게: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진영로 15, 6층 TEL 051)702-9944

학교법인 금정학원

이사장 오홍선

교장	정진완
교감	권장석
교법사	이석언
행정실장	김세경

교직원일동
금정반야불자회
서적조천회장 외
임원일동

■부산시 금정구 중앙대로 2104
전화 051)517-3984
팩스 051)517-3982

부산여성불자회

총재 혜총

지문위원	천양자 백명숙 양은순
회장	왕선자
장학회장	백영숙(광명심)
부회장	정정자 정순천 유명남
총무	박정림 김선미
재무	서정례 손하영

■부산 진구 중앙대로 913
(양정동, 불교회관 4층)
전화 051)817-3166, 3168

동래읍성 마안산 자비암

주지 청암 자관
신도회장 황선호

사부대중일동

■부산광역시 동래구 북천로 5번가길 46(명륜동)
전화 051)552-3320

대한불교조계종 소백산 비로사

주지 성공
사부대중일동

■경북 영주시 풍기읍 삼가리
전화 054)638-5033

대한불교원효종 대원사

창건주 대원행
주지 원경
회장 홍규환
총무 김경희

■대구광역시 달성군 가창면 오리 산 46
TEL 053)768-0887